남원 자봉센터, 청소년 유해환경 아웃(OUT) 캠페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 청소년들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아웃(OU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긴장감이 해소된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학교폭력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연합회 대원 230여 명과 함께했다.

캠페인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음식점, 편의점 등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준수 여부 △청소년 위험 환경(골목, 폐가 등)안전 점검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도통지구대,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도통지구대(대장 황인용)는 지난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도통자율방범대와 범죄 및 무질서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도통지구대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성탄절, 연말 송년회 등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중 밀집장소인 도통우체국, 물방개공원을 비롯 춘향골체육공원, 도통초 등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

황인용 도통지구대장은 "민·관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선제적 범죄예방 분위기를 조성, 연말연시 평온한 지역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팽주봉 신화 대표,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은 26일 농업회사법인 (유)신화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신화의 팽주봉 대표는 "군 위탁을 받아 펠릿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신화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 꿈을 찾아가게 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유)신화에서는 무주군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22년부터 목재를 활용한 펠릿 생산과 판매를 도맡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원들, 성금 150만원 기탁

무주군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5명이 26일 무주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최중길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회비를 모아 기부하게 됐다"라며 "요즘 다 먹고 살 만해졌다고 해도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아져 그분들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모아주신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

제24회 전북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 송년 위안문화공연 성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대표 김양옥)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24회 전북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송년 위안문화공연'이 지난 2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송년 위안문화공연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복지공로자 표창 수여식, 문화예술공연, 인권강의,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과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복지대상을 수상받았다.

전북도지사 표창에 유인선씨, 도의회 의장 표창에 김동석 상진신협 이사장, 국회의원 표창에 정동수씨, 교육감 표창에 김동복 인권상담가, 전주시장 표창에 김시우씨,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에 김몽례씨,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표창에 유자씨,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에 안선희씨, 전북도 사회복지서비스원장 표창에 김숙희씨가 선정돼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장애인들에 쌀, 라면, 쿠커냄비세트, 김치 등을 전달하는 장애인 돕기 물품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김양옥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장애인복지는 아직 미흡하지만, 복지예산과 일자리, 문화예술인권향상 등에서 장애인은 물론 지자체, 국가가 정책을 더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전 직원 대상 '갑질·음주운전' 참여형 캠페인 전개

전북도 감사관실은 26일 청사 1층에서 출근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회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사관실이 주관해 '갑질과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암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과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로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 등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갑질 및 음주운전 척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뤄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캠페인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해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상호존중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지속 안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도 이날 출근길에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을 직접 실천하고 직원들과 '직장 내 갑질 타파,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갑질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갑질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송철규 부총장, 3000만원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이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LINC 3.0 사업단장을 겸하고 있는 송 부총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족회사들에 대한 대학의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대학과 지역 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기금 출연을 결심했다.

특히 송 부총장은 LINC3.0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공공 판로개척과 맞춤형 기술개발 컨설팅 제공 등을 수행하는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학의 지원 하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산학기술학회 캡스톤디자인 대회 최우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컴퓨터정보과 학생들이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품한 작품은 '홀로렌즈2를 이용한 딥 러닝 기반 실종자 인식 시스템'으로 LINC 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캡스톤디자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매년 4만명 이상의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함에 따른 효율적인 경찰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혼합현실(MR) 플랫폼을 기반으로 딥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시간 실종자 얼굴 인식 및 추적 기능을 구현했다.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지도한 컴퓨터정보과 권숙연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발표역량이 향상되고, 또 대회 현장에서 타 대학 학생들의 작품들과 발표하는 모습,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 등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3D 모델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6일 비전관 AI뉴테크실에서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3D 모델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3D 모델링에 대한 학내 붐 조성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혁신, 미래 자동차, 미래 로봇 등 세 가지 혁신기술을 주제로 총 41개 작품들이 출품,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 및 협약산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획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며, 앞으로 AI, Robot 등 4차 산업 신기술 및 직무 기반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주비전대학교만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우수성과를 더욱 더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정경훈 순창 지역대장 취임… 고향사랑 100만원 기부

제4대 순창군 지역대장으로 정경훈 순창군 기동대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지난 22일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순창군 지역대장 취임식이 열려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 순창군의회 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 명령낭독, 7733부대 대대장 훈시, 순창군수 축사 등의 순으로 열렸다. 정경훈 순창군 지역대장은 순창군 인계면 출신으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대장, 순창 동계적성면 대장, 순창군 기동대장 등을 거쳐 이날 4대 순창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 순창군 기동대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군 최초 드론예비군을 창설하고 훈련장을 개장하는 등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정경훈 지역대장은 고향인 순창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순창군에 기부하면서 고향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취임식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정읍 샘골농협 · 부안 계화농협, 고향사랑 상호기부

정읍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과 부안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은 26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행사를 갖고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각 농협 60여 명의 임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부안군과 정읍시에 각각 300만원씩 기부했다.

허수종 조합장은 "두 지역 농협 간 상생협력을 더욱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훈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설구호 장안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순창군은 26일 ㈜장안 설구호 대표(순창군 금과면 출신)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토목과 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장안을 운영 중인 설구호 대표는 (사)한국생태복원협회장에 추대되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장학금과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평소에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설구호 대표는 "고향 순창군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다"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 체결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와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약정체결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 교류 등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복지관에서는 직업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평가, 직업능력향상교육, 사업체 고용인식 개선, 사업체 개발 등 다양한 직업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훈련 및 일자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